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7-28)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김옥순 수녀 작

[제1독서]..... 사도 4,32-35

[화답송] 시편 118(117),2-4.13-15 ㄱ 나.22-24
(◎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1요한 5,1-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31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4] 평화를 주옵소서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443] 자애로우신 주님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 파견성가: [25] 사랑의 하느님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¹⁹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²¹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² 이렇게 이리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²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²⁵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²⁶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²⁷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뚫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²⁸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²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³⁰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³¹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oors were locked, where the disciples were,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When he had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side. The disciples rejoiced when they saw the Lord. Jesus said to them again,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Whose sins you forgive are forgiven them, and whose sins you retain are retained.”

Thomas, called Didymus, one of the Twelve, was not with them when Jesus came.

So the other disciples said to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mark of the nail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into the nailmarks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Now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again inside and Thomas was with them.

Jesus came, although the doors were locked,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and see my hands, and bring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e.”

Thomas answered and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Jesus said to him, “Have you come to believe because you have seen m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ave believed.”

Now Jesus did many other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that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come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through this belief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목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토마스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약하다고 질책하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토마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하느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그분의 강력한 표징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연 과학이 말하는 증명을 통한 확실한 근거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삶의 표양으로 확실성을 얻는 신뢰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토마스의 불신앙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 눈으로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혹과 불신이 있음에도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부활은 먼저 문을 모두 잠가 놓고 두려워 떨며 영혼의 밑바닥을 직시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해방시키신 성령을 입을 때 체험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부활은 인간이 태초에 하느님께 지음받을 때 “흠으로 빚어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장면을 연상시키며,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새 생명은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초기 교회가 자아의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한 만큼만 쓰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면서도 기쁨에 가득 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믿음은 성령 안에 사는 것이며, 성령을 입은 사람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유 없이 이웃의 험담을 하며 흉을 보거나 악과 담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히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 자비의 사도’ 로 불린 마리아 파우스티나(1905-1938) 수녀를 시성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 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 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 로 지내고 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사랑은 따스한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 요한 바오로 2세

“주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의 은사를 통하여 세상에 되비추어 주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자비의 빛이 제삼천년기의 사람들의 앞길을 환히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인류도 역사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받으신 상처를 보여 주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느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장벽을 허물어뜨리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부의 사랑과 형제적 일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요한 5,2). 여기서 요한 사도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잣대요 그 기준임을 제시하면서, 참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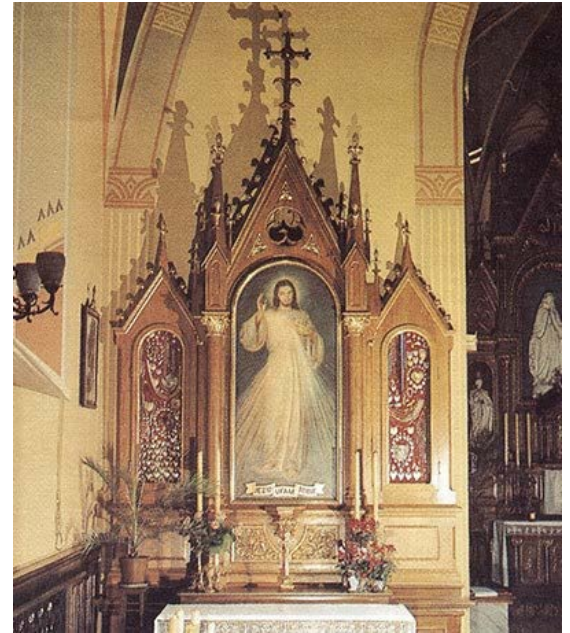
깊은 사랑, 곧 자신을 내어 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의 학교, 곧 따스한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로서 지니신 그분의 마음과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곧 거저 주고 나누는 마음, 너그럽고 관대하며 용서하는 태도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2000년 4월 30일,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의 시성식에서)

하느님의 자비 신심

폴란드 출신의 성녀 파우스티나가 전하는 하느님의 자비 신심의 핵심은 믿음과 실천에 있다. 20살에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한 파우스티나 성녀는 33살에 눈을 감았지만 평생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며,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웠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특별한 영적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알게 된 하느님 자비의 신비에 관한 내용을 일기로 기록했다. 일기에 기록된 성녀의 사명은 세 가지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세상에 일깨워 주는 것, ‘하느님의 자비’ 신심 실천을 통해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것과 하느님 자비의 사도직을 시작하는 것이다. 성녀의 일기 <나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행동과 말, 기도로 자비를 베풀 것을 당부했다. 또 성녀가 받은 메시지는 하느님의 자비 상본을 만들고,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지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후 3시에 하느님의 자비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 폴란드 크라쿠프 자비의 성모 수녀원 경당에 있는 자비의 성화. 성화 아래 관에 파우스티나 성녀의 유해가 안치돼 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상본에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과 심장에서는 붉은 빛과 옅은 빛의 두 줄기 빛이 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자비에서 흘러나온 두 줄기 빛은 성체성사와 교회를 상징한다.

2018년 주님 부활 대축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망시키지 않는 참된 희망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의 찬미 노래와 더불어, 온 세상의 교회 안에 이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이십니다. 성부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밀알의 비유를 통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예고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보십시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땅에 뿌리신 밀알이었던 예수님은 세상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고, 이를 동안 무덤에 갇히셨지만, 그분의 죽음 안에는 하느님 사랑의 모든 권능이 담겨 있고, 사흘날에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나셨으며,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날을 기념합니다. 곧, 주 그리스도의 부활(파스카)입니다.

바로 밀알의 힘ियो, 그 사랑의 힘은 스스로를 낮추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내어주며, 참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사랑의) 힘은 오늘도 수많은 불의와 폭력으로 물든 우리 역사의 밭이랑에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의 배척의 문화에 의해 거부 당한 난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마약밀매를 비롯해 인신매매와 우리 시대의 노예제도의 희생자들 사이에서, 빈곤과 배척이 있는 곳에, 배고픔과 실직이 있는 곳에 희망과 존엄성의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의 참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온 국민이 피폐해진,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를 위한 평화의 열매를 청합시다. 이번 부활절에, 즉각 대량학살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인간 권리가 존중되도록,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도움에 쉽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동시에 피난간 이들의 귀환을 위해 적합한 조건을 보장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군대 책임자들의 양심을 비추어주기를 바랍니다.

민간인들까지도 공격하는 전쟁으로 상처입은 (이스라엘) 성지를 위해 화해의 결실을 청하며, 대화와 상호 존중이 분열과 폭력을 이길 수 있도록, 예멘과 중동 지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종 권력남용과 박해를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악에 대한 선의 승리의 증인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빛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더 존엄함 삶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굶주림과 부족간의 갈등, 그리고 테러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대륙의 각 지역에 희망의 열매를 청원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남수단의 상처를 낫게 해주고, 대화와 상호이해에 마음을 열게 해주기를 빕니다. 전쟁의 희생자들, 특히 어린이들을 잊지 맙시다!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마저) 박탈당하고, 자기 조국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연대가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의 대화가 그 지역의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도록, 한반도를 위해 대화의 결실을 간절히 기원합시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닌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모든 허물을 씻어 주네. 죄인들에게 깨끗함을 돌려주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찾아 주네. 미움을 물리치고 화합을 이루며 권세를 누르네 ”

증진하고, 국제 공동체 안에서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혜와 분별을 갖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일치를 위한 행보가 강화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 활동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위해 평화의 결실을 청합시다. (베네수엘라의 사목자들이 썼던 것처럼) 같은 조국 안이지만 일종의 “낮선 땅” 에서 살아가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위로의 결실을 애원합시다. 주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통해, 그들을 옥죄는 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위기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인도적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조국을 등져야 했던 자녀들에게 환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기아로 교육과 의료 지원이 결핍되고, 희망 없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생산력” 이 없는 자를 한쪽으로 밀쳐 두는, 이기주의 문화로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길 빕니다.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며, 자국민들에게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전 세계의 위정자들을 위해 지혜의 열매를 기원합시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처럼,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루카 24,5-6)

죽음과 고독, 그리고 두려움은 더 이상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이 있고 오로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부활의 말씀입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십자가의 길 마침 기도, 2003년 4월 18일). 하느님의 사랑의 힘을 통해, 그 말씀은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모든 허물을 씻어 주네. 죄인들에게 깨끗함을 돌려주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찾아 주네. 미움을 물리치고 화합을 이루며 권세를 누르네” (파스카 찬송).

모두에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묵상

십자가의 기적



복음서가 가수 빌 만이 공연을 마친 뒤, 분장실로 들어왔을 때 한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으며, 전혀 볼 수조차 없었다. 빌 만은 공연으로 지쳐 있었지만, 노래 한 곡 불러 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흑인영가 ‘거기 너 있었는가’를 불렀다. 성가 489장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이라는 제목의 성가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있었는가 그 때에...” 빌 만의 목에 손을 대고 손끝 감각으로 노래를 느끼던 그녀는 눈물을 펄펄 쏟았다.

그녀는 수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리고 살아나실 때 한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 나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는 이 거룩한 욕심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헬렌 켈러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의 아픔을 지닌 그녀였지만, 그 모든 장애를 딛고 일어나 주님 안에서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장엄하게 싸워, 결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기적이다.

(차동엽 신부, 사도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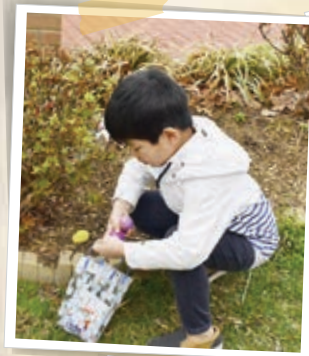
LOGOS made a huge and beautiful sculpture of an egg to celebrate Easter.

HAPPY
easter

CCD students showed up for St. Paul Chung Church's annual Easter Egg Hunt on Sunday, April 1.

Over hundreds of prize-filled eggs were hidden on the ground with different hunting areas, and childrens had a good time finding the eggs. The Easter egg hunt was carried out in three separate rounds: K-2nd grade, 3rd-5th grade and 6th grade and up.

Special Thanks to Fr. Bang, PTO and parent volunteers.



1. Jr. High BASH 2018

- **When & Where** : Saturday, Apr. 21
at Bishop O'Connell High School
- **Who** : All 6th-8th graders are welcome
- **Mandatory requirement for Confirmation candidates**
- **Cost** : \$10 per participant
- **Registration period** : Mar. 25-Apr. 15(Sundays)
at Sunday School Office
- Mor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via email.

2. SERVE 2018 Camp

(Formerly known as Jr. High WorkCamp)

- **When** : July 8 Orientation (6:15pm to 8pm)
July 9 - July 11, 2018 (8:30am to 8pm)
- **Who** : Open to all rising 7th to 9th graders
(Limited Spaces Available)
- **Where** : St. Leo the Great Catholic Church
(3700 Old Lee Highway, Fairfax)
- **Registration** : 10am to 1:30 at **Sunday School office**
- **Registration Fee** : \$50 per participant
- **We are in need of Adult Crew Leaders as well as High School Helpers.**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Clare),
CCD Assistant Principal at (703) 371-3589
or email spc15.re.admnc@gmail.com

3. Join Youth Liturgy Service

- Open to students from grades 6th to 12th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Sunday School
- To join, contact Mr. John Seok at (703) 581-3719
/aranghyunbin@gmail.com

4. Junior Legion of Mary

- **Who** : K - 12th grade students
- For more information, (703) 635-6837

1 구역 임원교육

• 일시 : 4월 8일(일) 오전 11:30(B-1,2)

2 단체장 회의

• 일시 : 4월 8일(일) 오전 11:30(B-3,4)

3 주일학교 봄학기 소방훈련(Fire Drill)

• 일시 : 4월 8일(일) 오전 11:10(하상관)

4 '하느님의 자비 주일' 기념

• 하느님 자비를 널리 알리고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 봉헌을 지향하며, <하느님의 자비 상본>을 미사후(8시, 10시미사) 나누어드립니다.
• 문의 : 안진이 제물치아 (703)216-5792

5 부활파 봉사단 첫 모임

• 일시 : 4월 8일(일) 오후 1시(하상관#108)
• 문의 : 이로사 (703)927-0404

6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사제와 수도 성소 그리고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와 묵주 기도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행해집니다.
• 미사 : 4월 13일(금) 오후 7:30 (미사 후 묵주 기도)
• 문의 : 성소후원회 (703-403-1185)

7 공동체 기도회

• 일시 : 4월 14일(토)
•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8 하상회

• 일시 : 4월 15일(일) 오전 11:30(B-3,4)

9 안나회

• 일시 : 4월 15일(일) 오전 11:30(A-1,2,3,4)

10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4월 15일(일) 오후 1시(B-3,4)

11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4월 15일(일) 오후 1시(B-1,2)

12 교육부 세미나

• 일시 : 4월 22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일자리 내용과 취업준비
• 강사 : 고찬 예로니모(경제학/공학박사)
• 대상 : 학부모, 진학을 앞둔 학생, 취업을 앞둔 준비생.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3 불우이웃 돕기 야드 세일

• 일시 : 5월 12일(토), 5월 13일(일)
• 장소 : 성당 친교실 / 주차장
• 물품 기증 : 4월 8일 - 5월 6일(친교실)
• 문의 : 김진석 마자아 (703)314-0905

14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주최 건강 검진의 날

• 일시 : 4월 21일(토) 오전 7시-오후 2시
• 장소 : 본당 친교실
•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갑상선 등의 검사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 문의 :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240)683-6663, (703)354-6345

15 2018년도 여름 하상 한국학교 교사, 자원 봉사자 모집

• 수업 기간 : 2018년 6월 25일 - 8월 3일(6주간)
(월-금 오전 9:30-오후 3:30)
• 모집 대상 : 1. 한국어 / 특별활동 교사 (사물놀이, 전통음악, 요가 등)
2. 보조 교사 및 자원 봉사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교사 지원서 1부
• 문의 : 교감 (703)598-5540/
이메일 : oyook315@gmail.com

16 제2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봉사부/K of C 주관)

• 초, 중, 고 에세이 콘테스트 장학 기금 마련 골프대회입니다.
• 일시 : 4월 22일(일) 오후 12:30
•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 문의 : 하진 세바스찬 (703)376-1372

17 동유럽 성지순례(독일, 벨지움,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재속 프란치스코 주회

• 일정 : 10월 5일(금) - 10월 20일(토)
(조상연 스테파노 수도신부님, 황성국 사베리오 수사님 인솔)
• 문의 : 한기남 데레사 (703)425-9445, (703)674-6081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부활 제2주일 : 2사무 17-20, 요한 2

KACM TV 하이라이트

4월 12일(목) 오후 5:00-6:00
4월 13일(금) 오후 8:00-9:00
4월 15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황창연 신부 성경여행 : 사도 바오로의 생애와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를 현장 답사와 함께 고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4월 1일(주님 부활 대축일)

주일헌금 \$ 23,804.00
교무금 \$ 9,84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3,920.00
특별헌금 \$ 100.00
2차헌금 \$ 2,511.00
성목요일 \$ 1,942.00
합계 \$ 42,11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향님의 4월 기도 지향

일반: 경제 분야 책임자들을 위하여

경제 전문가들이 용기를 내어 모든 배척의 경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방법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신자,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양보합니다.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9:5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하, 온규희(벌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장중희(벌바라), 김민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재종(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요), 안순경(모니카), 김 루시아, 김학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강애자(카타리나), 백영수(마리아), 고필순(제마), 김정희(요셉), 권진혁(요한), 전길두(베드로), 조동훈(아브라함), 황수현(바오로)

♥ 군복무자

강로리(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박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도나),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베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요세), 박홍모 이나시요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월 8일(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구역 임원교육(오전 11:30, B-1,2),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주일학교 소방훈련(오전 11:10, 하상관), 성보나벤투라 형제회 모임(오후 12:30), 부활파 봉사단 모임(오후 1시, 하상관#8)
9일(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0일(화)	부활 제2주간 화요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1일(수)	성 스타니슬라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12일(목)	부활 제2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3일(금)	부활 제2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CLC(오후 8시), 바오로 형제 모임(오후 8시)
14일(토)	부활 제2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하상관),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재속 가르멜 참사회 미팅(오전 10시)
4월 15일(일)	부활 제3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꼬미시움(오후 1시, B-3,4), 베드로회(오후 1시, B-1,2)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이크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립(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형)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체넬리 703-429-4622 러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